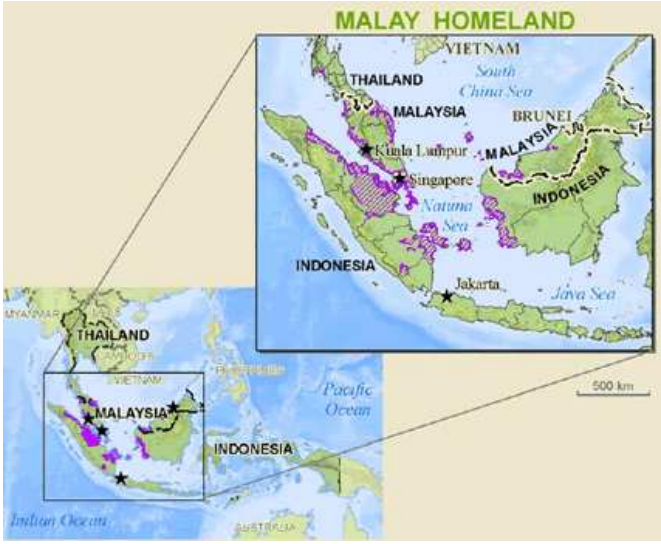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말레이족(Malay, Peninsular of Malaysia)



인 구 : 6,900,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사라왁(Sarawak) 주와 말레이반도 전반에 걸쳐 분포
언 어 : 말레이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0%
성경번역 : 전권(1996)

개요 / 역사

말레이반도 말레이족은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싱가포르내의 말레이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족이다. 말레이족은 국가언어인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연방헌법에 의해 말레이족이라 분류된다. 그들은 말레이 풍습을 따르며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말레이족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시한다. '파롱(Pa' Long: 큰 어른)'과 같은 이름은 계층적 지위를 인정하는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

생활양식

말레이족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잘 교육받은 도시의 말레이족은 사무직이나 관공서에서 일을 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의 말레이족은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상업 혹은 고기잡이 등의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한다. 시골의 말레이 남성들은 주로 랩스커트 같은 전통적인 의상을 입는 반면 도시의 말레이 남성들은 청바지나 폴로 셔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서구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다.

근래에는 현대적인 건물 양식의 집을 짓고 있지만, 여전히 말레이 족들이 모여사는 전통적인 가옥들이 많이 있다. 전통적인 가옥은 대가족의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하며 다세대가 한 지붕 밑에서 함께 거주한다. 말레이 사회는 사회정치적으로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레이족의 매우 사교적이며 공동체 의존적인 성향은 일상적이며 건강한 공동체로 간주된다.

종교

수세기전에 아랍과 인도 무역상들에 의해 이슬람이 전해진 후 많은 말레이 인들이 이슬람을 따르게 되었다.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헌신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말레이인들은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신실한 무슬림이 아니어도 금식월을 따르고 부유한 사람들은 일생에 적어도 한번은 메카로 순례를 떠난다.

일찍이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레이족은 지금도 결혼식 같은 그들의 문화속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랑과 신부가 그들의 손에 헤나염색을 하며 즐거워하는 하객을 위해 수 시간 동안 단에 앉아 있곤 한다.

또 이들에게 주술사가 있어 아무리 이슬람에서 무당들을 금지시킨다 해도 말레이반도의 많은 말레이인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마술'과 같은 기적을 필요로 할 때 무당들을 자주 찾곤 한다. 또한 그들은 영예로운 목적이나 혹은 하찮은 목적에도 사용한다. 더 나아가 축복을 받거나 병의 치료를 위해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해하거나 복수를 위해 일을 꾸미기도 한다.

필요와 기도제목

가족을 중요시하는 말레이인들에게 가족단위의 붕괴되어가고 이에 대한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 볼 수 있겠다. 이혼과 청소년문제는 말레이 가족에게 직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말레이인들과 그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 기도하자. 또한 젊은 기업가를 꿈꾸는 말레이 학생들에게 말레이의 교육, 스포츠, 비즈니스를 통해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자.

참고자료

http://www.joshuaproject.net